

안내

처음 '일'을 시작하는 1824 소녀들을 위한 <하이파이브>

"일을 하고 싶지만 심대를 위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요..."
"막상 일자리를 찾아도... 어떤 곳일까 두려워요..."
"솔직히 오랫동안 일 할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월급제보다는 일급이나 주급제가 더 필요하긴 해요."

이제 막 '일'과 만나려는 소녀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이파이브 하루 5시간씩 딱 5일만 일해 보아요~
그리고 일급이나 주급으로 받을 수 있구요...
5일 근무 후 본인이 희망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언제든 용기내서 본인이 직접 전화주세요!

문의 02)843-3872

일하는 여성만을 위한 주거권 <임대주택: 상도동 우리집>

각자의 방을 사용하지만 한 집에는 세 명이 살고 있어요.
아주 약간의 보증금과 함께 방의 크기에 따라 월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임대료 납부일 지키기, 한 달에 한 번 반상회 참석하기"
내세우는 약속은 두 가지뿐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럿이 함께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야겠지요.
임대주택 <상도동 우리집>
일하는 18세 이상의 여성만을 위한 주거공간입니다.
입주1순위는 폭력피해여성, 입주2순위는 취약계층여성입니다.

문의 02)844-0486

우리 함께 써요! <W-ing의 공간대여 안내>

	기본요금	적용시간	추가요금	기준인원	무료제공
교육장 <비전아카데미> (종일100,000원)	50,000원	3시간	시간 당 10,000원	15명	무선인터넷 음향장비 빔 프로젝트
카페 <신길동 그가게> (1인당 5,000원)	100,000원	3시간		20명	아메리카노 1잔 무선인터넷 음향장비 빔 프로젝트

문의 02)844-0486

인문학과 함께 삶의 풍요로움을! <2014 W-ing인문학아카데미>



W-ing은 신체의 능동이 영혼의 능동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일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습속을 끊임없이 변화시켜야 합니다. 직업은 삶의 척주입니다. 일하지 않는 삶이 주인되는 삶일 수는 없습니다. 타인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라도 공통의 감각을 익혀야 하고, 이를 위해서라도 신체 습속의 변화가 요청됩니다. 동시에 W-ing은 영혼의 능동이 신체의 능동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W-ing은 공부하는 일터, 인문학이 함께 하는 공간이고자 합니다.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윤리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데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W-ing에서는 매주 인문학을 공부합니다. 인문학을 통해 우리 삶을 새롭게 조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존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꿈꿉니다.

기간_ 2014. 2. 19~12. 17 매주 수요일 오전 9시~12시

대상_ W-ing에서 일하는 모든 여성들

주제_ 질병과 건강. 공동체의 의미. 선물의 능력. 문학의 향기. 영화의 세계 등등.

주관_ 현장인문연구소 인문팩토리 길

약도 버스/지하철 소개



주소 (우150-8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420-6
TEL 02. 843. 3872 / 02. 844. 0486
FAX 02. 843. 3871
E-mail w-ing@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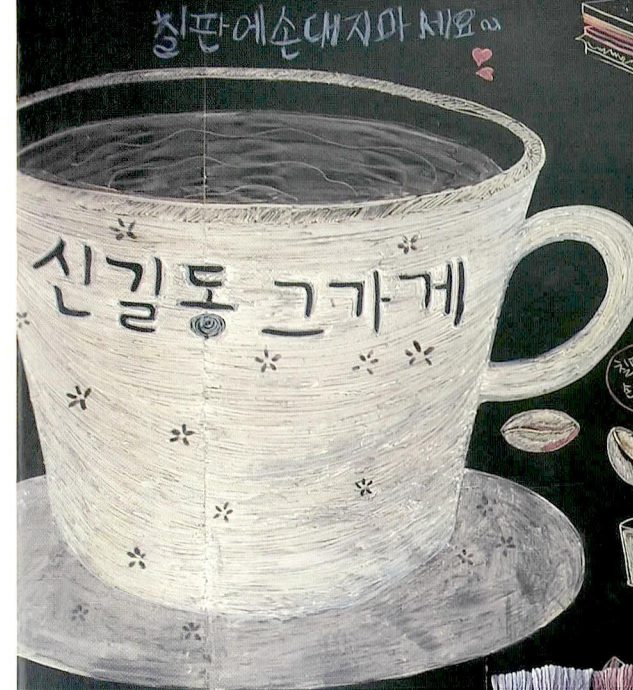
1호선 대방역하차 5번 출구 북쪽으로 200m 지점(도보 5분거리)

대방역 정류장 **간선버스** 150, 360, 362, 462, 507, 605, 640, 641, 650
지선버스 5531, 6211, 6411, 6514, 6515, 6516
마을버스 2번출구 동작01, 동작08, 동작13-1, 동작13

일하는 여성들의 자부심

W-ing

9531



리얼 레몬과즙
행차 샌드위치 5.0
콘치즈 브레드 5.0
허니 브레드 5.0

팔빙수
독신자들
커피왕
오곡팔빙수 6.0

모든 음료
선포

친한애
준대시
당여귀여

커피 Hot Ice
에스프레소 2.5
아메리카노 2.5 3.0
카푸치노 3.5 4.0
카페라떼 3.5 4.0
카라멜 마키야또 3.5 4.0
바닐라 라떼 3.5 4.0
카라멜치노 4.0 4.5
카페모카 4.0 4.5
화이트모카 4.0 4.5
프라프치노 4.5
카, 민트초코칩 4.5

매거진 1호
호모 워커스
Homo Workers :
나는 일하는 여성이다!

우리가 일하는 곳...
천연염색공장 <W-ing 9531>
대안문화공간 <신길동 그가게>
심대여성자립실험실 <조잘조잘 분식집>

인터뷰
W-ing is W-ing! 여성성공센터W-ing 최정은 대표

사회복지법인 W-ing
여성의 존엄한 삶을 위하여(1953~)

안내
처음 '일'을 시작하는 1824 소녀들을 위한 <하이파이브>
인문학과 함께 삶의 풍요로움을! <2014 W-ing인문학아카데미>
일하는 여성만을 위한 주거권 <임대주택: 상도동 우리집>
우리 함께 써요! <W-ing의 공간대여 안내>

발행: 여성성공센터W-ing 편집책임: 최정은 인쇄 및 디자인: 니나의 정원 2014. 2. 호모워커스 제1호 www.w-ing.or.kr

W-ing

우리가 일하는 곳...



신길동 그가게



검정색 블라우스에 까만 캡을 쓴 아름다운 여성이 진하게 내린 에스프레소를 건넨다. 커피를 내리는 손씨가 어색함 없이 아주 우아한 걸 보니 바리스타 교육을 상당히 강도 높게 받았음을 짐작하겠다. 커피맛도 여타 커피전문점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는데 상당히 고급스런 원두가 그 비결인 듯했다. 빈티지스런 따뜻한 난로 옆에 앉아 커피를 출썩이며 빨간 테두리의 넓은 창을 통해 바라본 고즈넉한 겨울풍경은 바쁜 일상 속에서 찾아낸 보석 같은 휴식이었다. 카페 내부엔 원두를 직접 볶는 로스팅머신까지 자리 잡고 있어 작은 카페 치고는 커피를 위한 세팅이 완벽하게 이뤄진 듯했다. 바리스타 교육과정은 어떻게? 2주간의 인턴교육 후 커피 제조 테스트와 서비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식 스태프가 될 수 없다. 스태프가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베이커리 과정, 복잡한 메뉴 제조 과정까지 마스터해야 한다. 신메뉴 개발을 위한 주간 회의와 다양한 실험도 계속해야 한다. 마지막 관문은 커피전문점의 핵심인 원두 볶기이다. 타이밍과 온도 and 원두의 배합이 절묘하게 이뤄져야 최고의 커피가 만들어지는 법이라 이 과정은 고참 스태프만이 참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한 명의 바리스타가 탄생한다. 커피 향기에 영혼을 담는 여성이 탄생한 것이다. 이런 여성이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는가. 커피는 삶의 여유이자 사색의 향기다. 가끔은 인디뮤지션들의 작은 공연이 열리는 곳, 또 가끔은 인문학 강의도 펼쳐지는 곳, 대안문화공간 <신길동 그가게>의 커피맛을 느껴보도록 하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420-6
직접 로스팅한 동티모르의 공정무역 커피와 국내산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든 음료, 쿠키, 샌드위치, 팔빙수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인문학 강좌, 인디밴드 공연 및 공간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W-ing 1953



천연염색 스카프, 천연염색 손수건, 수제수세미, <W-ing 1953>에서 제작하는 제품들이다.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제품의 질은 월등히 우수하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냐고? 여기 그 증거들이 있다. 수제수세미는 현재 부산에 있는 대항마트인 메가마트와 서울에 있는 행복중심생협에 당당히 납품되고 있다. 천연염색 손수건은 국내의 모 기업에 거래하고 있는 외국계 회사에 선물용으로 증정한다고 한꺼번에 800장씩이나 주문하는 상품이 되었다. 천연염색 스카프는 온라인쇼핑몰 핑거팝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품으로 선정되어 메인화면에 오르기도 했다. <W-ing 1953>에서는 제품 생산에 있어 대충이란 없다. 가장 아름다운 색을 얻기 위해 다양한 염료를 실험하는 수많은 과정들, 착색에 가장 적합한 원단을 선택하는 시행착오들, 계절의 변화와 유행의 변화에 뒤지지 않기 위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과정들. 이 수많은 일들을 이곳의 여성들이 몸소 겪고 있다.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그 자체가 이 여성들에게는 가장 좋은 교육의 장이자 자기완성의 토대가 된다. 그 까닭은 정성을 다 쏟기 위해서라도, 동료와 협력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존재를 변신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며, 직업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 존엄의 실현을 위한 최고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최고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 당당하고 떳떳하게 일하고 돈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W-ing 1953> 여성들의 아름다운 자부심이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420-6
직접 개발한 양념으로 맛있게 만든 족석떡볶이와 귀여운 주먹밥, 얼얼한 라면, 새콤한 쫄면, 부담 없이 즐기는 추억의 도시락을 비롯하여 갈비/김치/고기 만두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후식으로 달콤한 아이스크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잘조잘 분식집



간판을 보니 '십대여성자립실험실'이라는 문구가 이채롭다. 십대여성들이 모여 '조잘조잘' 거리며 빨갈고 매운 떡볶이도 만들고, 착고 양증맛은 주먹밥도 만들고 있다. 십대들이 꾸러가는 가게라서 그런지 밝고 경쾌한 웃음이 멈추질 않는다. 불조절도 물조절도 모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가끔은 어설픈 듯이 보이기도 하고 아슬아슬 위태롭게도 보인다. 하지만 보호만 받는 십대이길 거부한 그녀들, 당차게 주문을 받고 재빨리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의 입을 즐겁게 한다. 한때는 일찍 세상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가을하늘을 타고 오르는 풍선처럼 맑고 탄력 있는 십대들 아닌가. 그렇게 젊고 이쁜 십대들이 모여 능력이 부족하면 조금은 동료들에게 의존하면서 함께 일하는 힘을 मिलन 삼아 힘겨운 세상을 아름답게 건너가고 있다. 어제까지는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먹을 수 있는 찻집은 소비자였지만 이제는 직접 라면을 끓이고 만두를 찌는 과정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애환과 기쁨을 아는 지혜로운 여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손님이 떠난 식탁을 닦는 그녀들의 눈빛을 보라. 아직 한참 앓던 저 소녀의 눈 안에는 삶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번뜩이고 있다. 일하는 자의 송고함, 텃밭이 돈을 번다는 자신감. 그렇게 꽃 같은 십대여성들이 성숙한 이십대가 되어갈 것이다. 그녀들을 보노라면 세상엔 대단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든다. 자신이 맡은 일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 온 정성을 다 쏟는 것, 그것이 그녀들의 삶을 찬란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5길 34
직접 개발한 양념으로 맛있게 만든 족석떡볶이와 귀여운 주먹밥, 얼얼한 라면, 새콤한 쫄면, 부담 없이 즐기는 추억의 도시락을 비롯하여 갈비/김치/고기 만두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후식으로 달콤한 아이스크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W-ing은 그저 W-ing일뿐이죠!
아직도 시도해볼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폭력 피해나 가난으로 인해 소외된 여성들이 천연염색 제품도 만들고, 바리스타가 되어 커피도 만들고, 분식집에서 신메뉴도 개발하고 있다.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 바로 여성성공센터 W-ing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지금까지 이 여성들에 대한 특정한 편견들이 있었다. 그들은 제대로 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보호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생각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성성공센터 W-ing에서는 이런 편견이 통하지 않는 듯하다. 일을 통해서만 존엄한 인간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W-ing에서는 호모 워커스, 즉 일하는 여성들의 활기찬 삶이 가득하다. 이렇게 여성들의 주체적인 삶을 위해 여성들로 하여금 직접 다양한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여성성공센터 W-ing의 최정은 대표님을 만나 보았다.

여성성공센터 W-ing은 한 마디로 어떤 곳인가요?
우리 사회엔 여러 이유들로 인해 마음껏 일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폭력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여성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일찍부터 거리를 헤매는 위기청소년들,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신분을 감추고 살아야 하는 여성들. 그런 여성들이 일을 통해 자활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여성자활지원센터가 바로 W-ing이지요.

그렇다면 W-ing은 복지기관인가요, 아니면 작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W-ing이 그 중간쯤... 그 둘의 접합지대 속에 존재하는 여성자활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복지기관이기도 하지만, 커피, 분식, 천연염색 스카프 외 다양한 상품을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작은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국가의 지원이란 분명히 한 시적인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었어요. 사실 여러 능력에서 부족하고 자신감도 많이 없는 여성들이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W-ing과 같은 곳이 많이 필요해요. 취약계층의 여성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만든 제품들을 당당하게 판매하고, 그 수입으로 임금을 올리고, 근무환경도 개선하면서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 W-ing이 복지기관이나, 작은 기업이나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W-ing은 그저 W-ing일뿐이죠! 아직도 시도해볼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W-ing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처음부터 일자리 중심이었나요?
1953년부터 시작되었으니 작년에 설립 60주년이 되었어요. 처음 시작은 모자복지사업으로 시작했고, 그 시대에 필요한 여성복지사업을 수행해왔어요. 직업보도사업도 했었지만 주로 쉼터 중심의 사업이었죠. 물론 여전히 쉼터의 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여성들도 많겠지만, 저의 경험 상 '쉼' 그 자체에 머물러 있을 때보다 '일'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되찾고, 상처를 치유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일을 통해 자기 존재의 자부심을 갖게 된다고나 할까... 그래서 과감히 2011년에 쉼터 운영을 종결했고요.



현재 주거지원은 각자 임대료를 내는 방식의 임대주택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2011년부터 본격적인 일자리 중심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W-ing만의 모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신체의 능동은 영혼의 능동과 평행하다는 스피노자의 말이 우리 W-ing의 모토라고 할 수 있어요. 일은 기본적으로 신체의 능동을 위해 필요하지요. 일한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신체를 타인의 신체 리듬과 접속시키는 일이죠. 따라서 신체적 리듬을 기존의 것과 변화시켜야 하지요. 신체의 리듬은 동시에 영혼의 리듬도 바꾸라고 합니다. 신체와 영혼이 평행하기 때문에 둘은 함께 변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수요일엔 인문학 공부를 합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일을 통해 행복한 여성의 삶을 살기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곳에서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미리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저희 W-ing은 그 무엇보다 기본기를 중시합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학력이 높은 낮은, 돈이 많은 적은, 과거의 경험이 무엇이든 그것은 문제가 안 되지요. 이곳에서 일을 해봄으로써 다른 어떤 곳에서도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W-ing의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타인과 협력해가면서 일하는 것, 이것은 직업을 가진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이 기본기만 잘 터득하고 실천한다면 W-ing은 물론이고 다른 곳에서도 일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인터뷰_이수영 (인문팩토리길 연구원)

사회복지법인 W-ing 여성의 존엄한 삶을 위하여(1953~)

사회복지법인 W-ing은 여성들의 인간답고 존엄한 삶을 지향합니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악습이 잔존하는 한, 경제적 불평등이 우선적으로 여성들의 가난으로 전가되는 한, 권력적인 다수자가 여성이라는 소수자에 대해 폭력적인 지배를 관철하는 한 여성의 삶은 언제나 비인간적이고 비참한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가부장 제도나 경제적 빈곤, 남성의 폭력성에 기대어 지금 이 순간의 삶을 황폐하게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W-ing은 보호만 받는 여성, 보호에만 의지하려는 여성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다수자는

결코 알 수 없는 삶의 고통, 소수자이기에 더욱 민감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폭력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과 왜곡된 삶에 대한 이런 민감함과 섬세함이야말로 위대한 여성적 가치이므로 여성이 존엄한 삶을 구성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존엄한 삶을 누리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W-ing은 상처 입은 여성, 가난한 여성, 소외된 여성들이 그 상처와 가난과 소외를 오히려 삶의 자산으로 만들고, 그 자산을 받침돌로 하여 존엄하고 아름다운 삶의 건축물을 쌓아 올리기를 원합니다.